조계총림 송광사 방장후보에 현봉 스님

1년 6개월여 만에…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서 방장 추대



조계총림 송광사 새 방장후보로 현봉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진화)는 9월 30일 경내 자재원에서 방장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전임방장 보성 스님의 임기만료 1년 6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이날 현봉 스님의 방장후보 선출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현봉스님뿐만 아니라 현 조계종 원로의원인 현호 스님, 현묵 스님 등이 후보로 함께 추천되고, 쉽게 최종후보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송광사는 장시간 논의 끝에 방장후보를 임회에 위임해 추대키로 하고, 임회는 광원암 감원인 현봉 스님을 최종 방장후보로 추대했다. 이후 송광사는 바로 산중총회를 다시 열고, 이 같은 임회 결과를 추인했다.

방장후보로 선출된 현봉 스님은 1974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송광사에서 수련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총림 선원 유나를 지냈으며, 송광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정광학원 이사, 재심호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봉 스님의 방장 추대는 오는 11월 열리는 중앙종회 정기회서 최종 확정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종도사업제안 총 13건 접수

출가진흥책 비롯해 키즈카페, 영상위원회 설치 등

조계종이 최초로 실시한 종도사업제안에 총 13건이 접수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에 따르면 9월 30일 마감한 종도사업제안 결과 출가진흥책을 비롯해 조계사 키즈카페 운영, 불교영상위원회 설치 등 13건의 사업제안이 이뤄졌다. 출가자는 5건, 재가자는 8건의 사업을 제안했다.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사업은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의 현서 스님이 제안한 '불교수행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출가문화 프로그램' 이다. 이 사업은 주 1회 또는 월 1회 출가체험을 바탕으로 1회에 1알씩 구슬을 만들어 총 50알을 엮으면 완성되는 출가문화프로그램이다. 특히 현행 출가교육과정에 마음치유, 불교명상, 상담 등을 접목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남수행원을 월정사, 여수행원을 봉녕사 등으로 지정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도 제시돼 있다.

이외에 유아와 젊은 부모의 유입을 위한 조계사 키즈카페 운영,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불교영상위원회 설치,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부에게 신생아 물품을 지원하는 '선재의 요람' , 사찰 길라잡이 전문 영어 교육과정 등도 시대 흐름에 따른 사업제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계종 총무원 윤승환 기획차장은 "올해 처음 선보였지만 많은 사업들이 접수돼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성과가 나온다면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제8대 교육원 부국장 인사

9월 30일 임명, 교육부장 진광 · 연구소장 정운 스님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부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진우 스님은 9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신임 부국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교육부장 진광 스님,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 연수국장 산성 스님, 사무국장 영조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진우 스님은 "이번 인사로 교육원 인선이 완료돼 본격적인 업무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6~7대 교육원 성과를 잘 계승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승가교육 개혁불사로 나아가도록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원장 스님의 교육철학에 따라 승가교육이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깨달음 지상주의 전환 필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깨달음과 보살행' 주제 토론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탈종교화 따른 종교 신뢰 하락
神 아닌 인간행위에 관심 높아
보살행 강조하는 불교엔 기회
보살원력 가치 대중에 알려야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화합과혁신위원회 기획위원 제4차 토론회 장면.

부처님이 강조한 지혜와 자비로 각각 대변되는 깨달음과 보살행. 국내에서는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돈점논쟁' 을 비롯해 '깨달음은 이해의 영역' 이라는 주장으로 촉발된 '깨달음 논쟁' 까지, 깨달음과 관련된 논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정작 함께 주목받아야 할 보살행은 마치 후순위의 가치인 것처럼 평가되는 경향이 짙은 한국불교에 깨달음 지상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본부장 정념)는 9월 30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서 '깨달음과 보살행, 보살행과 깨달음' 이라는 주제로 화합과혁신위원회 4차 기획위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수많은 수좌들이 선방에서 수행하지만 보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세간의 목소리에 깨달음이 무엇인지 되짚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명법 스님(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은 최근 철학에서 논의되는 '인간성' 의 개념에 주목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간과 기계인간의 차이가 모호해지고, 믿음과 신앙이 새롭게 정의되는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가치 중 하나가 '인간행위' 라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명법 스님은 "신을 전제하지 않는 신앙은 인간행위에 주목한다. 인간행위는 바로 타자를 향한 열린 행위"라며 "불교에는 보살도에 이 같은 가치가 녹아 있다.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의 경지로 이끌겠다는 보살도는 타자에 대한 믿음이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깨달음과 보살도는 동전의 양면이고, 서로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깨달음도 1960년대 전후세대가 주장한 자아중심적 해석이 아니라 보살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 승가공동체 복원과 함께 사부대중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2016년 초 급부상한 '깨달음 논쟁' 과 관련해 불교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재해석했다. 서 교수는 '깨달음은 이해' 라는 일각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깨달음은 불교가 불교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핵심 가치"라고 역설했다.

서 교수는 "깨달음을 이해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종교성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수나 학자가 가장 종교적이고, 헌신적 보살행을 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깨달음의 가치를 〈법화경〉 화성유품의 화성(化城)에서 찾았다. 화성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험난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막의 신기루 오아시스와 같다. 깨달음에 대한 도달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깨달음이 있기에 이를 향한 원력을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깨달음은 탈종교화 시대에 버릴 전통이 아니라 오히려 부각해야할 대목"이라며 '육방예경 교훈' 처럼 깨달음의 의미를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육방예경 교훈은 한 장자의 아들이 의미를 모른 채 부친의 유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서남북과 위아래를 향해 절하는 모습을 부처님이 보고 각 방향의 의미와 윤리를 설한 이야기다.

서 교수는 "깨달음 지상주의에 대한 문제는 수행의 양태나 잘못된 수행문화를 고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광덕 스님이 '보현행으로 보리 이루리' 라고 설했던 것처럼 '보살행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는 방향의 해석이 한국불교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고명석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 역시 현재 한국불교가 지나치게 깨달음을 강조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현대인들이 종교에 깨달음이나 해탈, 영생보다 개인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위로를 바란다는 2014년 대국민여론조사를 제시했다.

고명석 연구원은 "모든 존재와 나 자신이 둘이 아님을 이해하고, 이는 모든 존재에 대한 이타행으로써의 보살원력의 길이 된다"며 "〈반야심경〉에서 언급되는 보살행 그 자체가 한없이 자유롭고 공포도 없는 위없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기에 대승불교는 공에 대한 통찰과 이타적 보살행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대충대종사 유지, 바르게 잇자"

천태종 10월 1일, 제2대 종정
대충대종사 26주기 열반대재



천태종은 제2대 종정을 역임한 대충대종사의 26주기를 맞아 10월 1일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 중흥을 이끈 대충대종사의 26주기 추모 열반대재가 단양 구인사에서 엄수됐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10월 1일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대충대종사 제26주기 열반대재' 를 봉행했다. 열반대재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 스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등 종단 스님, 류한우 단양군수, 김영주 단양군의회 의장, 유족과 신도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대충대종사께서는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고, 깊은 수행으로 일심삼관의 묘리를 득도하셨다"며 "지혜와 자애한 덕성으로 제방의 불자들에게 원만각행의 명철한 심지를 일깨워 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문덕 스님은 "대종사님은 '자각각타의 대승보살행은 진심을 다해 실천 궁행하는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므로 쉬지 말고 정진하고 끊임없이 자비를 실천하라' 고 하셨다"면서 "오늘 대종사님의 열반일을 맞아 법체와 우렁찬 설법이 그리워진다. 우리는 추모의 법석을 통해 대종사님께서 펼쳐 보인 대승보살의 큰 자비와 지혜를 더욱 바르게 이어갈 것을 다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추도사에서 "대종사님은 자신에게 엄격했고, 신도들에게 자상하고 따뜻하셨다.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중생구제 불법홍포에 일생을 바치셨다"며 "단양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대조사 · 대종사님의 은덕 덕분이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자"고 당부했다.

김영주 단양군의회 의장도 "지금같이 혼란한 시기 대종사님의 실천적 불교가 필요할 때"라며 "오늘 이 자리는 대종사님이 이룬 은덕을 되살펴 보는 자리다. 우리 모두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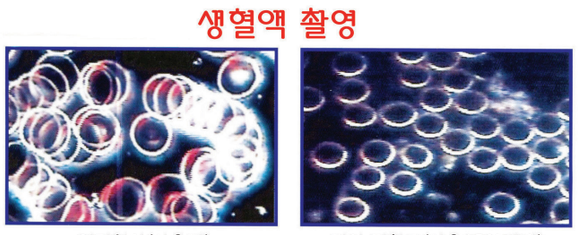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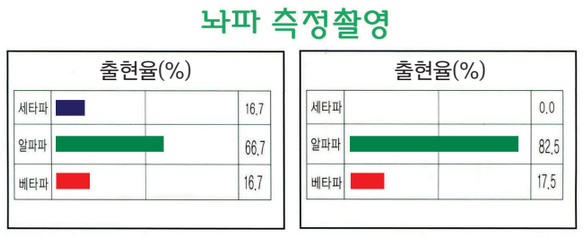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